

## 에콰도르, 꼬레아(Correa) 대통령 재선 배경 및 향후 전망

### 1. 꼬레아(Correa) 대통령 재선

#### □ 52% 지지율로 결선투표 없이 재선 확정

○ 5월 6일(현지시각) 에콰도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6일 치러진 대선에서 現대통령인 꼬레아(Correa) 후보가 전체 유효득표수의 51.8%를 획득, 28%의 득표율에 그친 前대통령 출신 구띠에레스(Gutierrez)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고 최종 발표하였음.

\* 에콰도르 선거법은 후보자가 50% 이상의 득표를 획득하거나, 40% 이상을 획득하고 2위 득표자와 10%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결선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함.

○ 에콰도르 현대 정치사에서 결선투표 없이 1차 투표에서 선거 결과가 확정된 것은 1979년 이후 30년만이며, 신헌법에 의해 꼬레아 대통령은 2013년까지 임기가 보장되고 연임도 가능한 상황임.

#### <꼬레아 대통령 약력>

- 1963년	과야킬 출생
- 1987년	과야킬대 경제학 학사
- 1991년	벨기에 Catholic University 경제학 석사
- 1999년	미 일리노이대 경제학 석사
- 2001년	미 일리노이대 경제학 박사
- 1993~2005년	산프란시스코 데 끼또대 경제학과 교수
- 2005년 4~8월	재정경제부장관 역임

## 2. 재선 배경

### □ '08. 7월 신헌법제정을 위한 국민투표 승리

- 꼬레아 대통령은 2007년 취임과 동시에 사회 및 교육 인프라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 주택 보급 증대, 세금감면, 생필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인기영합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폭넓은 지지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대통령 권한 강화, 국유재산에 대한 국가 통제 강화 등에 대한 신헌법제정을 강력히 주장해 왔음.
- '07. 9월 선거를 통해 여당 중심의 제헌의회를 구성하는 데 성공(총 130석 중 80석 차지)하여 기존 의회를 무력화하였고, '07. 11월부터 제헌의회는 신헌법제정 및 법률 개정 등에 대한 작업에 착수하였음.
- 신헌법(안)은 '08년 7월 제헌의회를 통과하였으며, 9. 28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64%의 찬성으로 최종 확정되었음.
- 꼬레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치러진 제헌의회 수립 국민투표, 제헌의회 선거, 신헌법(안) 국민투표 등 3차례에 걸친 중간평가에서 모두 승리하였고, 특히 의회해산권과 연임 규정을 포함한 신헌법(안)이 높은 국민의 지지로 통과되면서 꼬레아 대통령의 재선은 이미 예견되었음.

#### <'08년 신헌법의 주요 내용>

- 대통령 권한 강화 (4년 연임 허용, 의회해산권 부여, 통화정책 권한 강화)
- 석유, 석탄, 통신 분야의 국가 통제 및 규제 강화
- 일부 외채 '불법' 규정 및 상환거부 허용
- 국가에 유희농지 몰수 및 재분배 권리 부여
- 외국 군사기지 제공 금지
- 동성결합에 이성결혼과 동등한 권리 부여
- 가정주부, 비정규직 노동자에 사회보장 혜택 부여 등

□ 정치적 안정을 바라는 중산층의 압도적 지지

- 에콰도르 정국은 1996년부터 2007년까지 11년간 무려 7차례에 걸쳐 대통령이 바뀌면서 불안한 양상이 지속되었음.
- 부카람(Bucaram), 마우아드(Mahuad), 구띠에레스(Gutierrez) 등 3명의 대통령은 의회의 탄핵으로 축출되었고 나머지 대통령은 대부분 승계 형태로 한시적으로 국정을 운영하였음.
- 이에 따라 에콰도르 국민들은 정치적 안정을 지속적으로 희망해 왔으며, 2007년에 강력한 카리스마와 행정능력을 겸비한 꼬레아 대통령이 당선되고 제정의회 구성, 신헌법 제정 등을 통해 정국이 안정세를 유지하게 되자, 국민들의 현 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2006년 대선 당시 22%에서 현재 60~80% 수준으로 크게 높아진 상황임.

<1996~2009년간 에콰도르 대통령 변천 과정>

재 임 기 간	대 통 령	비 고 (축출사유 등)
1996. 8. ~ 1997. 2.	Abdalá Bucaram	국민 총파업 발생 후 의회에서 축출
1997. 2. ~ 1998. 8.	Fabián Alarcón	국회의장이 임시대통령으로 선출
1998. 8. ~ 2000.1.	Jamil Mahuad	군부 및 인디언 단체 쿠데타 기도, 대통령 자진 퇴진
2000. 1. ~ 2003. 1.	Gustavo Noboa	부통령으로서 헌법상 대통령직 승계
2003. 1. ~ 2005. 4.	Lucio Gutiérrez	대국민 시위 직후 의회에서 축출
2005. 4. ~ 2007. 1.	Alfredo Palacio	부통령으로서 헌법상 대통령직 승계
2007. 1. ~ 현재	Rafael Correa	Palacio 대통령 재임시 재무장관 역임

□ 구태의연한 정치세력 등 야당 후보군 취약

- 이번 선거에서 꼬레아 대통령과 경쟁한 야당의 후보들은 과거 2004년 독단적인 국정운영으로 대국민 시위를 야기하고 결국 의회에서 축출당한 애국사회당(PSC)의 구띠에레스 전대통령, 에콰도르 최대 바나나 재

별이자 대선 4수생인 국가재건제도행동당(PRIAN)의 노보아 후보, 중도 온건좌파인 롤도스 후보 등으로 구성됨.

- 이처럼 대부분 야당 후보가 이미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구태의 연한 정치가였고, 각각 다른 정치 성향으로 단일화가 어려운 상황에 있자, 선거 초기부터 국민의 관심은 꼬레아 대통령의 재선 여부보다는 결선투표 직행 여부에 더욱 쏠렸던 게 사실임.
- 실제로 최종 개표 결과 구띠에레스 후보는 28%, 노보아 후보는 11%, 롤도스 후보는 5%에 미치지 못하는 득표를 기록하는 데 그쳤음.

### 3. 향후 전망

#### □ 당분간 강력한 통치체제 유지될 듯

- 신헌법(안) 제정, 의회 과반수 확보 등에 힘입어 꼬레아 대통령의 정국 장악 능력은 보다 확대되었으며,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높은 지지율, 야당 견제 세력 미비 등을 배경으로 꼬레아 대통령의 강력한 통치체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 유가 하락, 경기 침체 등으로 선심성 재정지출에는 한계 봉착

-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국제 석유가격의 회복세가 지연될 경우, 정부의 선심성 재정지출 여력이 약화되면서 인기영합주의 정책에 한계를 드러내어, 현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급격히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실제로 에콰도르의 금년 경제성장률은 달러공용화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업률도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12%대로 상승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경기침체에 따른 세원 감소, 유가 폭락 등으로 연간 재정수지 적자폭이 3%대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정부보조금 등 재정지출을 30% 이상 축소하기로 결정하는 등 재정정책에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음.

**<에콰도르 주요 경제지표>**

	2007	2008	2009	2010
경제성장률(%)	2.5	5.3	-4.0	1.0
재정수지(%)	3.7	-0.5	-3.5	-2.7
실업률(%)	8.8	7.6	12.8	15.2
원유생산량(천b/d)	511	505	475	495

자료 : EIU

**□ 외채협상, IMF 관계 회복 등 해결과제 산적**

- 아울러, 에콰도르가 처한 또 다른 어려움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글로벌 본드(2012, 2015, 2030)에 대한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사실상 외자도입이 차단<sup>1)</sup>되었다는 점임.
- '08. 12월 에콰도르는 과거 불법 소지가 있는 글로벌 본드, 국제기구 및 이국간 채무(브라질, 스페인 등) 등에 대해 채무불이행 선언을 하였음.
- '09년 1월 비상각료회의를 통해 2015년 글로벌 본드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상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신인도 추락으로 IDB<sup>2)</sup>, CAF, FLAR(Latin American Reserve Fund) 등에 요청한 금융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글로벌본드 채권단도 에콰도르 정부를 상대로 국제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당분간 국제금융시장에서 고립된 상황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에콰도르 정부는 중국, 이란 등을 통해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중이며, '09. 4월 중국 정부와 원유 현물 상환을 조건으로 10억 달러 상당의 인프라 투자 유치에 합의한 바 있음.

2) IDB에 요청한 5억 달러 차관 중 1억 달러는 집행되었으나, IDB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IMF의 에콰도르 경제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고 집행하겠다는 입장임.

- 이에 따라, 상당수 전문가들은 코레아 정부가 채권단과의 조기 협상 개시, 미국과 IMF와의 관계 회복 시도 등 국제신인도 회복을 위한 정책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 정부보조금 등 저소득층을 위한 선심성 재정지출에 의존하는 정책보다 고용 확대, 수출 촉진 등을 위한 생산성 증대 및 국가경쟁력 확보 전략을 적극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음.

**<에콰도르 대외채무 구조>**

구분	국제기구	은행권 및 본드	정부
비율(금액)	42.7%(42.7억달러)	41.2%(41.38억달러)	15.5%(1.5억달러)

※ 외채총액 : 99.89억달러(08.11 기준), 주에콰도르 한국대사관

책임연구원 최성규(☎ 02-3779-6662)  
E-mail : ppio93@koreaexim.go.kr